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방탄유리가 설치된 유세차 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화재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민주·국힘, 첫 TV 토론 결과 두고 ‘아전인수’ 비난

민주 “李, 국민의 삶 책임질 후보”
“金, 졸속 후보 민낯…尹 답아 무능”
국힘 “李 무책임 토론…국민불안만”
이준석 “李 답변, 인성에 문제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전날 열린 중앙선거위원회 주관 1차 TV 토론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놔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 TV 토론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준비된 후보인 반면, 김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후보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토론에서 준비 안 된 후보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시종일관 윤석열을 빼다 닮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며 역시 ‘윤석열의 대리인’임을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후보는 어제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토론에 임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TV토론회는 이 후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걱정·공포 지수만 더 높여줬다”고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토론 태도는 무지와 무책임, 준비 안 된 토론의 전형”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김 후보에 대해선 “노동 약자들의 아픔과 기업 성장을

어떻게 조화할 지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전날 TV 토론과 관련해 “어제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에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식의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상당한 수를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답하는 과정에서 ‘어쩌라고요’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 쪽이 아닌 쪽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 경제론’을 거론하며 “외상으로 소비하고 나중에 취소하면

경제가 돈다는 논리냐”며 “이런 주장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모텔과 유사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경제 순환의 상승 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김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고 해 파장이 컸다”며 “자영업자들을 모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원재룻값을 예로 든 것일 뿐, 전체 원가로 해석한 건 왜곡”이라고 응수했다.

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 추진을 두고도 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임금

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말 그대로 기업에게 부담을 다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며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관을 놓고도 붙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친 중국적’이라고 몰아세웠고,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를 ‘친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응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문수·이준석, 덕담 나눴지만 단일화는 평행선

김 “당이 잘못해 고생”
이 “단일화 관심 없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만나 덕담을 나눴지만, 단일화에 대해선 의견 차를 드러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준석 후보는 제가 속한 국민의힘 대표였다 보니 저보다 당의 여러 정책, 이념, 인물에 대해 잘 안다”며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했다. 이 후보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고생 끝에 대성공”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에 이어 인사말을 한 이준석 후보는 “방금 전 김 후보가 디딤돌 소득과 서울권 정책이 넓은 범위에서 시행되면 좋겠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강북구 삼양동의 오세훈 삶, 노원구 상계동의

이준석 삶, 경복 영천의 김문수 삶이라는 것을 2000년대생 아이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꿈꿀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오 시장을 사이에 두고 기념 사진을 찍은 뒤 웃으며 악수했다.

이날 서로를 칭찬하는 두 후보의 모습은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는 단일화 가능성과 맞물려 이목을 끌었다.

토론회 이후,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하라는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후보는 단일화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안타깝기는 하다. 김 후보의 진정성과 보수 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는 의심 안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 이어 문병호 ‘李 지지 선언’

개혁신당 소속인 문병호 전 의원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이 최근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한 데 뒤이는 것이다.

문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17대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이후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당적을 옮겼고, 바른미래당과 국민의힘을 거쳐 올해 초 개혁신당이 창당될 때 합류한 바 있다.

개혁신당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도 지난 17일 이재명 후보의 광주 유세에 참석

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 일각에서는 허 전 대표 역시 민주당으로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머무르다 전날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도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앞서 입당식을 가졌다.

김 의원은 “보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서 시작하고 끝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이룩해 낸 주요 세력으로, 저는 ‘참민주 보수’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에 민주당의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지역 법조계 “지귀연 판사 립살롱 접대, 명백한 범죄”

민주, 사진 공개 “당장 법복 벗겨야”
광주 시민단체 “尹재판 배제됐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며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

접 확인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립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립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립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며 “지 판사는 립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물겠다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공개와 관련해 광주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사와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단순한 사적 만남이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지 판사가 700만원짜리 술값을 사건과 관련 있

는 변호사에게 결제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사건만으로는 해당 장소가 립살롱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명확한 제보자의 진술이나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면서도 “사건 관계자나 법조계 인사로부터 향응을 받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신이고, 법관 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기우식 내란정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 행동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법기술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진행한 지귀연 판사는 이미 배제됐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좌주기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야 한다. 지 판사 의혹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정유철 기자

민주당, 광주 봉선2동 ‘보수 표심’ 집중 공략

오늘 경청간담회… 표심 잡기
국힘도 전략지역 선정 ‘가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구 봉선2동 등 보수성향이 짙은 지역의 표심 잡기에 총력을 펼친다.

민주당 광주 선대위 전략기획본부는 20일 오후 4시 봉선2동 카페 프리어에서 지역주민 10명과 김민석·신정훈·황명선·양부남·정진욱 의원 등 국회의원 5인, 선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청 간

담회’를 개최한다.

봉선2동은 광주 내 대표적인 ‘아파트 부촌’으로, 고소득·고학력 인구 비중이 높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지역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봉선2동 제5투표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9.1%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특성에 주목, 전통적 뒷밭인 호남에서조차 보수정당 득표율이 높게 나온 지역을 집중 공략해 완승을 노린다. 21일에는 봉선2동 일부 주민이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선대위 관계자는 “20대 대선 봉선2동 득표율이 이재명 72.12%, 윤석열 21.87%로 호남 평균에 비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며 “고소득·고학력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 지지세를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봉선2동을 전략지역으로 선정, 30% 득표율 수성을 목표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현 국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 온라인 권리당원의 80%가 20~30대라는 점에서 조선대와 동구 득표율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